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청소년 역량강화 방안

A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Youth Activities and Enhancement of Youth Competence

오해섭*
Hae Sub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o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review the enhancement of competence in youth. The research methods used the extensiv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Based on the major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youth activity will need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enhancing the competencies and a full complement of positive connections to youth programs. Second, communities promote to engage youth as partners with adults in the proces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ird, youth development organizations operate to support the programs to prevent risky-behaviors or treat specific problems in terms of community youth contexts. Finally, collaboration and network are necessarily required among youth, adults, family, school, organizations within the community. Changes to work and workplace are so significant that policies refer to 'the knowled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ohs@nypi.re.kr

society'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society'. Future workers will need to have the skill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nagement and control.

주요어(Key words) : 지역사회(Community), 청소년활동(Youth Activity),
청소년 역량(Youth Competence)

1. 시작하며

지난 20여 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정보화 사회는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 청소년층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컴퓨터, 휴대폰, TV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통신기기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야외 활동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청소년유해환경이 되어, 그 중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은 기존의 청소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건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편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주로 중앙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행사위주의 청소년활동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충분히 투자해야 하며,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방향제시, 통찰력, 에너지, 그리고 노력 등을 제공하는 완전한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온전한 기여자들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그들이 개발한 기술과 재능을 현

장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하는 권리와 시민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기관들의 변형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단순히 사회의 특정한 프로젝트와의 관계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얽혀진 학습 및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있다(Pittman, 2000).

만일 충분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변화촉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 노력은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입장에서 보면 사각의 테이블을 떠받치는 4번째 다리로 표현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인들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평생학습자로서,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서, 변화촉진자로서 사회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론화된 견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분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정 먼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대중적인 의견일치와 가치에 대한 동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실천 전략이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네 번째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재능을 습득하여 자신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Pittman, 1992; Pittman & Zeldin, 1994; Takanish, 1993). 나아가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을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지역사회들은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청소년개발과정의 파트너로서 적극 관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 젊은이들이 성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숙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은 단순히 예방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충족 과정에 몰입(commitment) 하게 될 때 그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정도는 자동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시민으로서 혹은 미래의 성인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국가에 건전하게 기여(contributing)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재능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empowered)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정책과 각각의 단위 사업들을 지역네트워크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추진방향

형식교육의 대표기관인 학교의 공식 일과가 끝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어떠한 활동에 참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의 청소년들은 곧장 집으로 귀가하지만 상당수는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대학 입시를 위하여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초, 중, 고 혹은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하거나 집 근처 소규모 사설학원에서 신체단련과 학습보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귀가 후에는 주로 TV시청과 컴퓨터 게임, 친구들과의 어울려 놀면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사회 청소년이용시설과 평생학습 관련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취미, 교양 혹은 전문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강좌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수영과 같은 스포츠를 비롯하여, 예능, 외국어, 미술 및 서예,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적지 않은 위험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을 줄이는 반면,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긍정적 측면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영역이다(Benson, Leffert, Scales, & Blyth, 1998). 위험행동의 종류는 단순한 폭력행위에서부터 인터넷 게임중독, 약물남용,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심각성이 또한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의 47%가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Synder & Sickmund, 1997). 반면, Larson(2000)은 청소년은 중요한 생활기술들이 학교에서보다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쉽게 습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청소년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가용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종합적 생활공간으로 전체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공간 속에 지역사회의 환경과 그 안에 가족, 학교 또래집단과 같은 소규모의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은 하부로부터의 청소년 개개인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사회는 그 자체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 학교, 가족, 또래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양면성에 따라 문제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해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향후의 청소년정책의 접근에 대해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역중심의 현장과 실천위주의 청소년정책이 되어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오해섭, 2007).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의한 지역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년지원과 서비스의 확대한다.

둘째, 청소년사업공모제 등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기관·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화시킨다.

셋째, 지역사회중심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기회확대를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특히 주5일제와 같은 학교와 사회의 변화는 학교라는 보호기능을 수반해 주는 공간의 축소로 청소년환경이 변화되면서 교육의 중심이 점차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추구해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존중감, 감정조절, 그리고 자아정체감 향상과 관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을 표현하는 요약된 정보이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속하고자하는 집단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집단과 집단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혹은 시대적 맥락에서 정체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 직업적, 오락적, 그리고 영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표현될 수 있다(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Bertjan Doosie eds., 1999).

둘째, 더 나은 생활기술 획득을 비롯하여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일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학업성취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중퇴 혹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성인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의 기회 제공

일곱째, 외로움, 수줍음, 그리고 절망감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행동에 관여기회를 차단하는 방향

한편 적극적 관점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그 방식에 있어 청소년들의 요구수준과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역량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역량개발의 영역구분에 따른 역량강화 방안 모색

Garbarino(1985)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을 최상으로 영위하는 동시에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중요한 직

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의 기술, 태도, 동기,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능력임과 동시에 한 개인의 사회화와 발전의 목표라고 표현하였다.

Schaie & Willis(1999)는 역량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행위이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에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는 주도력, 그리고 새로운 계획실천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배울 수 있는 학습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역량개발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다.

3.1. 시민 역량(Civic Competence)

시민역량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대의를 추구하고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시민역량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참가, 지역사회 환경미화사업, 저소득층 학습지원, 불우계층 주거환경 개선, 선거참여 홍보, 지역 정치현안 이해 등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 내 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적인 기여와 의미 있는 역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김영인(2007)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와 역량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혹은 대중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둘째, 참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공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익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능동적 참여의지와 행동으로 실천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관념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지와 행동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능력으로 참여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에게 공익정신과 참여행동 못지않게 이러한 과정을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참여에 따른 책임감이다. 공익정신과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상태이지만 자신의 참여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세심한 주의와 접근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을 함양시켜야 한다.

3.2.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사회적 역량은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우정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여러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Scales & Leffert, 1999). 사회적 역량에 포함되는 것은 기획력, 의사결정 기술, 감정이입, 대화기술(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동료집단에서 적절한 지위유지, 자발적인 책임의식, 적극적인 임무수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Downs, 1990; Scales & Leffert, 1999). 청소년기 체험중심의 협동학습과 건전한 성격발달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역량강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인터넷과 이동통신기기에 매달려 누에고치(cocoon)처럼 자신의 틀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머무르는 디지털노마드족에게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오프라인(off-line)상의 다양한 활동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3.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배경, 관심, 그리고 전통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차이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구촌은 이미 세계화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경제공동체 형성, 인터넷과 위성통신을 통한 국제뉴스 전파 등에 힘입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접하는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결혼과 해외노동자들로 인한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외국인 거주지역과 문화거리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 및 집단과 상호교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이해교육 강좌에 참여하거나 외국 문화원을 방문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별 문화행사 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메일이나 인터넷 서신교환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3.4. 인지적 역량(Intellectual Competence)

인지적 역량은 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학교 졸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적절한 표현기술을 배양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연구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는 성인기 직업적 성공에 대한 강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asten et al., 1995). 또한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skills)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인터넷으로 인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수많은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불행이도 그 많은 정보가 모두 정확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과 습득한 정보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는 왜곡될 수 있고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자로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을 배워야 한다.

다변화된 사회에서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의 중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날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학습프로그램에 참여가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 둘째는 비형식교육은 학교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비해 지도자와 성인들이 학습 촉진자 혹은 파트너로서 관여한다는 점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비형식교육은 대개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기법을 활용한다(Resnick, 1987). 경험학습은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경험학습 과정은 구체적인 체험(concrete experience)과 체험한 내용에 대한 기술, 체험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한 반성적 고찰(reflecting),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apply)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5.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e)

직업적 역량은 직업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기술과 조직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업적 역량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들어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직업세계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평생진로개발프로그램(Life-long 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 현장에 네 가지 새로운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Wyn and Dwyer 2000:151). 1) 학습과 직업 수행 간의 긴밀한 연관성, 2) 무자격자의 기회 감소와 전문 분야 자격증에 대한 수요 증가, 3) 경력관리의 중요성, 4) 파트타임 직업의 증가 등이다. 고용 현장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역량 영역은 1) 자원 관리 능력, 2)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유지 능력, 3) 정보 활용 능력, 4) 시스템 이해 능력, 그리고 5) 기술 활용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필수적 기능은 1) 읽기, 쓰기, 산술과 같은 기초 적 기능(basic skills), 2) 창의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 학습 능력과 같은 사고력(thinking skills), 3) 개인적 책임감, 사회성, 자기 관리능력, 정직성과 같은 성격적 자질(personal qualities) 등이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학부모, 청소년지도자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적합한 역할 모델 관계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글을 마치며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제도의 재편 방향은 기존의 중앙중심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동적인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개발기관 및 단체들이 새로운 조직적 사고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기존의 청소년활동 개념이 학교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여가활동의 차원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과 연관된 분야별 역량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 모두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역량과 에너지를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개발에 대한 논의 중의 하나는 단순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건전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문

제점들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함과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직업 및 노동환경 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먼저 취업 및 고용 현장의 새로운 유형의 변화 및 트렌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도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현재와 미래 직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초적 직업능력과 핵심적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김영인(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호(2002). “생활권 수련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학교 주5일제 대비 청소년수련 활동활성화방안 워크숍자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용석(2005). “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오해섭외(2007).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정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진(2006). 미리사회와 인간.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 지충남(2006). “지방정치화 엘리트,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천정웅 · 이용교 편저 (2007).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개발,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5)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enson, P.(1998). *All kids are our kids*. San Francisco: Jossey-Bass.
- Downs, C.(1990). *The social biological constructs of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pp 43-94)*. Newbury Park. CA: Sage.
- Eugene C. Roehlkepartain(1998). *Building Asserts in congregation: A Practical Guide for Helping Youth Grow Up healthy*.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 Garbarino. J.(1985). Human ecology and competence in adolescence, *Adolescence development: in ecological perspective*(pp.40-86). Columbus, OH: C. E. Merrill.
- Masten et al.,(1995).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Bertjan Doosie eds.,(1999). *Social Identity: An Introduction*.
- Peter L. B. & Karen J. P.(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ittman, K. J.(1992). *defining the fourth 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Pittman, K. J.(2000a).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33-36.

Scales, P. & Leffert, N.(1999). *Development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and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Schaie, K. & Willis, S.(1999). Theories of everyday competence and aging. *Handbook of theories on aging(pp.174-195)*. New York: Springer.

Snyder, H. & Sickmund, M.(1997).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1997 update on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Wyn, J. & Dwyer, P.(2000). 'New Patterns of Youth Transition in Educ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64, pp. 147-59.

논문투고일: 2008. 08. 15

1차수정일: 2008. 09. 10

게재확정일: 2008. 09. 15